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학 변호사·힘문화아트센터 대표

대통령 선거가 시나브로 다가올에 따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한데 이전 선거판이 아니라 싸움판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尹)은 무능·무식·무당의 '3무'"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이(李)는 무법·무정·무치"라고 맞받아친다. 서로 물고 물리는 비난전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싸움꾼들만 나왔다며 집짓 집잡은 체하지만, 실은 공격을 잘할수록 더욱 열광하며 지지를 보낸다. 상대를 제압할 만한 싸움꾼이 아니면 카리스마가 없어 '깡'이 아니라며 무시하곤 한다.

그러나 '내 편' '내 편' 싸움에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국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친구도 가족도 편이 갈린 채 얼굴 붉히기 일쑤다. 그런 국민이라면 그토록 지지했던 대통령도 결국 비난하며 가족에 보내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인가. 국민이 '내 편이 못되어야 내 편이 잘된다'는 경쟁적 사고에 빠진 한 우리 앞에는 '내 편' 목 조르는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다. 견제할 힘마저 빼앗아 버릴 만큼 야당을 지냈는데 능한 대통령만으로 어디 국민들의 삶이 편하든가. 국민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길, '내 편'도 배려하며 함께 가려는 대통령은 불가능한 것인가.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노모는 올해 86세이다. 10여 년 만에 노모를 만나 이틀을 함께 지냈다. 노모의 집 거실엔 팔순 생일날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삼대에 걸친 총 열두 명이 사진 속에 있다. 노모의 팔순 생일날 가족들이 모인 김에 형님이 갑자기 제안해서 찍게 되었다. 과거의 가족 사진에서 풍기는 근엄함이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복장도 캐주얼하고 분위기도 화사하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이다. 사진이란 낯은 익숙한 가족이다. 그 당시엔 의도해서 찍은 것도 아니어서, 찍고 나서도 얼마나 볼까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 6년이 지난 지금, 다들 찍어 두길 잘했다고 한다.

티 없이 밝고 화목한 가족사진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으니 바로 나다. 나야말로 제대로 출가외인(出家人)이다. 서울 생활까지 포함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했으니 나는 무늬만 가족인 셈이다.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온 내게 가족사진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으로나 접하던 것이어서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남도 아닌 우리 가족이어서 더더욱 비현실적이다.

기고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제19기 6중 전회에서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인 '당의 100년 분투 및 중대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채택했다.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함께 사분 오열에서 민족 단합까지, 가난에서 전면적 샤오강 사회로 이르기까지, 외세 침략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실현하기까지, 선진국이 몇 백 년 동안 걸어온 산업화의 여정을 불과 몇 십 년 만에 완주했으며 빠른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를 앞두고, 또한 1981년 개혁 개방 초기에 중국 공산당은 역사에 관한 결의를 두 차례 채택한 바 있다. 두 결의는 당이 중국 인민을 단합하여 구국(救國)·흥국(興國)·부국(富國)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의 세 번째 '결의'의 상당 부분 내용이 중국이 지난 9년 동안 이룩한 역사적 성취에 초점을 두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중국은 첫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였고,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구축했으며, GDP가 10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1인당 GDP는 1만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불가능한 것인가

10여 년 전 내가 만드는 '월간독자 Reader'와 경쟁 잡지가 함께 홍보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참석자 500여 명 중 10퍼센트로 예상되는 독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게임이 될 것 같았다. 난감했다. 마이크가 주어지자 나는 그 잡지도 구독해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상보다 세 배도 더 넘는 사람들이 두 잡지사에도 구독 신청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때 한 신부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부님에게 어느 한의사가 찾아와 하소연했다. 한약 손님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길 건너에 또 한의원이 생겼으니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신부님은 "먼저 남의 한의원이 잘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엔 그 거리에 한약방만 더 늘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이 한약 거리로 소문나 손님들이 마구 몰려들더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다.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다!

어느 날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한 아가씨가 다가와 "제가 뭐라도 돕고 싶어요"라고 했다. 나는 강의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책을 만들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직만 선호해 늘 실손이 부족하다고 했었다. 내 강의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하며 웃어넘기고 말았다. 몇 년 후 까말게 있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다. 고액 연봉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월간독자 Reader'를 매달 읽으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살고 싶어졌다고 했다. 책 편집에는 조판인 그녀에게 그런 높은 연봉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 회사로 출근을 했다. 그녀의 첫 출근 날 나는

마음먹었다. "결국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6년 전, 모두들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며 집 사지 말고 전세를 살라고 떠들어댔다. "이럴 때 오히려 집을 꼭 사야해!" 7000만 원 전세로 살고 있던 그녀는 3억 원도 넘는 아파트를 사라는 내 말에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 뻔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가 매워 줄게. 꼭 집을 사!" 내 말에 그녀는 대물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문제인 정부를 거치며 그녀의 집값은 내 배나 올랐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산다고,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해도 몇십 년 넘게 걸리는 몹쓸 세상이라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봉이 높을수록 좋다'고. 그러나 그녀가 집을 산 것은 돈이 있어서도, 몇십 년간 저축을 해서도, 연봉 경쟁에 앞서서도 아니었다. 실손이 부족하다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 남을 배려하다가는 손해만 볼 것 같은 이 험난한 경쟁 세상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우리는 늘 경험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게임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 편'은 몰락시키고 '내 편'만 떠받드는 나라의 국민이 잘 살 수는 없다. 이제 우리도 '내 편'을 더 잘 공략하는 싸움꾼 정치인이 아니라 '내 편'도 배려하는 더 폭력 있는 후보를 우리 대통령으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가족사진

분명 한 가족인데 가구 수는 아홉 가구다. 가족사 생활하는 동생네 딸까지 포함하면 열 가구다. 위키 백과사전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중략)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가족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법으로 정해진 혈연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공유이다. 일상의 공유를 피파워 외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식구(食口)가 될 것이다. 식구란 한 지방 아래 살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혈연은 아니지만 식구인 경우, 흔히 '가족' 같은 '이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면 혈연이기는 하나 식구는 아닌 경우, 가족은 가족이긴 한데 가족다운 살가움, 정(情)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2020년 한국 사회의 가구수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무려 39.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인 10명 중 4명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가족은 있을지 몰라도 혈연과 식구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질적인 가족은 없는 셈이다.

현대의 가족은 어쩌면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사진으로만 존재할지도 모른다. 노모의 집 거실에 걸린 우리 가족의 사진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가족과 현실 속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핵가족까지 붕괴되어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현대 사회에서 식구로서의 가족은 실질적인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현대의 우리는 혈연이자 식구로서 '한 때' 일상을 공유했던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듯, 한번 가족으로 인연이 맺어지면 영원히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현대의 가족은 더 이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외연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가족은 현실의 일상이 아니라 관념과 사진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이전 세대는 산업 발전의 격랑을 겪으며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뿌리내리고 살았다. 그들은 마음 속에 고향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고향은 다름 아닌 그들이 떠나온 공동체였다. 이미 고향을 떠난 현대인은 이제 가족을 떠나 나 홀로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 속에 가족을 품고 나 홀로 혹은 직장 동료들과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시대 그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다. 왜 소중히 여기는가? 상실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마저 사라지면 현대인은 돌아갈 곳이 없다.

어쩌다 보니 나는 가족사진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그치지 서운하지는 않다. 덕분에 명실상부한 출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3차 '역사 결의'의 세계적 의의

달리를 넘어서는 등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년 동안 중국이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난제를 풀어나가며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큰일을 해낸 것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과 모든 중국 국민이 함께 분투한 결과다. 이에 힘입어 현재 중국은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역사 경험에 대한 검토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성공의 역사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이론의 지도이다.

'결의'는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의 핵심, 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정했다. 또한 당의 영도, 인민지상(人民至上: 인민이 최우선), 이론 혁신, 독립·자주, 중국 노선, 홍회천하(胸懷天下-세계를 품다), 개혁 혁신, 통일 전선, 자아 혁명 등 중국 공산당 국정 운영의 열 가지 소중한 경험과 세계의 가장 큰 정당으로서의 성공 노하우를 도출해 냈다. 즉 이번 '결의'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자 전 세계가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는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발전은 하나의 대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고소득 경제체로의 도약을 이루면서

국민 생활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인류 진보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길은 전 세계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국가 독립 유지를 원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새로운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일대일로' 구상 등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며 인류의 진보와 세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4년간 연속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넘었으며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활력소가 될 것이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이고 호혜 상생의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수교 이후 각 분야가 밀접히 연결되고 깊이 융합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매우 모범적인 협력 관계다.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을 양국 관계는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앞으로 중한 양국이 함께 미래 발전 청사진을 그려 나감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왕래를 심화시키며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국제 협력을 강화시키길 바란다. 아울러 중한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중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코로나의 재반격' 3차 백신접종 적극 나서야

변이종인 오미크론 유행으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위드코로나나 조지 이후 급증하던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서서는 전격적으로 5000명대에서 곧바로 7000명대로 올라서는 등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6일 확진자가 105명 나와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늘어난 후 7일 111명, 8일 105명으로 계속해서 1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단 감염과 연쇄(n차) 감염이 잦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광주에선 서구 소재 초등학교와 동구 합창 모임, 북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후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구 초등학교의 경우 그제 초등학생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선 무안 목욕탕 관련 감염을 비롯해 무안·순천·여수를 중심으로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인해 중증 전담 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고 의료 인력 과부하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들은 연말·연초에 신규 확진자가 매일 8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의 대반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다. 필수 없는 모임을 자제하고 이동을 줄이면서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및 단체들도 방역패스(접종 완료자 확인) 제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3차 백신 접종(부스터샷)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서구 '부적격 업체' 선정 의혹 명확히 밝혀라

광주 서구청이 부적격 업체에 주민들의 '집수리 사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서구는 의혹의 지적을 받고서야 부적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공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광주 서구청과 서구에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0월 농성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 사업은 예산 9억 원을 들여 노후 주택 100채를 수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공개입찰을 거쳐 A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같은 달 A사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찰 자격에는 업체가 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A업체는 건설공제회 가 발급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구 전승일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가운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31채에 대한 집수리가 중단돼 애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파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업체가 최종 선정 과정의 하나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음으로써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공사 업체를 부실 검증했다는 점은 결코 어쩔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사업 대상 주택은 주민의 삶은 물론 공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사업자의 적격 시공 여부를 포함해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한 점 의혹 없도록 엄중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업체 검증 미흡, 공사 감독 부실 등과 관련한 인재였다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구의 부실 검증으로 사업 대상 100채

無等鼓

수년 전만 해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짐작도 못한 '혼밥'이 최근엔 '혼자 살아가는' '짚돌이'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혼밥'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듯하다. 감염 우려에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을 혼자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기 시작한 탓이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이들 '혼족'을 위한 1인용 식탁을 한두 개 정도 비치하는 게 일반화됐을 정도이다. 지금의 혼밥은 바쁜 직장인들의 단면이거나 코로나가 만들어 낸 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 혼밥은 그야말로 일상의 모습이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모두 한 개의 소반(小盤)을 놓고 혼자서 식사를 했다. 이는 사대부들이 성리학의 예법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중국의 '예기'나 '주례'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마을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주인과 손님에게 따로 독상을 차려 내야 된다"라고 쓰여 있다. 심지어 혼인한 부부도 남편 혼자 식사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국에서는 그러나 당나라 이후 북방의 유목 민족 영향을 받으면서 독상 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대중화됐다. 반면 조선 사대부들은 중국의 예법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남자들은 반드시 소반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의견을 갖추고 소반 앞에서 남성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은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는 너무나 특이하게 비쳤을 것이기에 이를 묘사한 그림이나 글도 적지 않다.

20세기 들어 우리나라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까지 나서서 가장의 독상 식사를 비판했다. 여기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정과 음식점에서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교자상 문화가 널리 퍼졌다. 100년 전만 해도 혼밥은 타파해야 할 가부장제의 폐해로 지목됐지만 이제는 효율성과 위생·방역 측면에서 오히려 올바른 식사법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재희중 사회부장 chae@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